

늘 농민과 함께... '돈 되는 농업' 으로 농촌에 희망 준다

전남농협

농협중앙회 전남지역본부는 농협 창립 60주년을 맞은 올해 '전남 쌀 종자주권 독립'과 '브랜드 농산물 강화' '디지털 농업 발굴' 등을 추진했다.

올해 초 취임한 박서홍 전남본부장은 전남 농민들이 '돈 되는 농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현장을 찾아다니며 대안을 마련하고 있다.

그는 "농도(農道) 전남이 우리나라 식량 창고, 친환경농산물 1번지 위상을 지킬 수 있도록 소득원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농업인들의 일손 공백을 메우겠다"며 "농업과 농촌을 지키는 힘은 우리 농축산물 애용에서 나오기에 국민 모두가 국산 농산물 소비로 농업인들에 힘찬 응원을 보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농협 올해 창립 60주년

쌀 종자 독립·농산물 브랜드화 데이터 기반 디지털 농업 강화 치유 농업·청년농업인 육성

인력난 농촌 일손돕기 꾸준히 매출 효자 로컬푸드 직매장 확대 11월 농산물 온라인 센터 개설 비대면 판매 대폭 늘리기로

◇쌀 종자 독립-농도 위상 지키다

올해 육성 3년차를 맞은 전남 벼 품종 '새청무'는 올해 재배면적 50%를 웃돌며, 내년에는 10만ha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전남농협은 지난 6월 농협 창립 60주년을 기념해 함평 들녘에서 '전남쌀 종자주권 독립'을 선언했다.

'종자주권 독립선언문'에는 "대한민국에서 외래 품종을 없애고 우리 토양 우리 기후에 적합한 고품질 전남쌀을 생산, 종자주권을 확보"하고 "소비자와 농업인 모두 농업의 가치와 쌀의 소중함을 되새겨 전 국민의 식량안보를 지켜내자"는 내용을 담았다.

지난해 기준 전남 벼 재배면적 15만6000ha 가운데 벼·보리·찰보리 등 국산 식량작물 100여 종은 98.6% 비중(15만3831ha)을 차지하고 있다.

히토메보레·고시히카리 등 식량 외래품종은 1.4% 비중(2195ha)에 그쳤다.

전남 쌀 대표 품종 새청무는 기후변화에 강한 장점을 인정받아 지난 2019년 1만ha에서 올해 8만ha 면적에서 재배될 정도로 농업인 선호도가 높다.

전남농협은 새청무를 필두로 한 쌀 농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스마트 자율주행 모내기과 지능형 드론방제시스템 등 디지털 농업을 확대하고 있다.

전남농협은 지난달 전남도 농업기술원과 협약을 맺고 디지털 농업 활성화에 협력하기로 했다.

두 기관은 앞으로 ▲지능화-데이터 기반 디지털 농업 촉진 ▲스마트팜 연구개발 및 중소농 육성 ▲신기술 보급·확산 지역단위 협업체계 구축 ▲치유 농업 활성화 ▲청년농업인 육성 ▲탄소중립 농업 실천 등에 힘쓰기로 했다.

전남농협은 농업 효율화를 위한 빅데이터 플랫폼과 농업인포털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중소농을 위한 보급형 스마트팜과 전용 플랫폼 등을 성공적으로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농업인들은 농산물 가격예측 서비스 등 체계적인 영농지원을 받게 된다.

올해 전남농협 임직원들은 코로나19와 이상기후



박서홍 본부장이 '함께 하는 100년 농협' 문구를 가리키며 지역과의 상생을 강조하고 있다.

영향으로 극심한 인력 부족을 겪는 농촌 현장을 찾아다니고 있다. 이들은 무안·함평 양파, 표고버섯, 아열대 농산물, 멜론 수확, 새싹산 식재 현장들을 방문해 인력난 해결을 위한 일손 돕기를 꾸준히 진행하고 있다.

지난 6월 전남도, 광주·전남지역 대학교 총장협의회와 맺은 협약에 따라 두 달 동안 513명에 달하는 지역 대학생들도 일손을 보탤 예정이다.

◇로컬푸드 직매장·비대면 판로 확보

'농가 매출 효자' 역할을 하는 로컬푸드 직매장은 올해 전남에서 38개 매장이 더 생길 예정으로, 총 100곳 개소를 앞두고 있다. 지난해 전남 로컬푸드 직매장 매출은 전년보다 43% 증가하며 전국 평균 매출 증가율(36%)을 웃돌았다.

전남농협은 이동형 판매대 설치비용의 50%를

지원하며 로컬푸드 직매장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농축산물 판매 증가와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매장 발굴 '두 마리 토끼'를 잡는다는 계획이다.

신안 임자도 중심에 자리잡은 임자농협 로컬푸드 직매장은 올해 3월 개통한 임자대교로 인한 관광 특수를 제대로 누릴 것으로 보인다. 마찬가지로 최근 조성된 능주농협 직매장 매대는 복숭아, 딸기 등 제철 과일이 가득하고 영암 삼호농협 직매장은 대불산단 조선소 안팎 수요를 충족할 예정이다.

전남농협은 오는 11월 농축산물 온라인 센터 개설을 계기로 비대면 판매를 대폭 늘린다는 방침이다.

홈쇼핑과 온라인 생방송(라이브커머스) 등 비대면 방식으로 소비자를 만난 원에 농산물은 280t, 11억6400만원 상당이다.

전남농협은 전남 과실 광역 브랜드 '상큼에'와 아

열대 작물 '오매향'을 중심으로 농업 소득증대를 노리고 있다.

'상큼에'와 '오매향'을 내건 전남농협 산지육성단은 지난해 133억6700만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75억7000만원)보다 76.6%(58억원) 증가한 금액이다.

전남농협 산지육성단은 무화과와 단감, 사과, 배 등 15개 품목을 공동 브랜드를 내세워 생산과 출하, 유통, 판촉을 단일화했다.

전남도와 전남농협이 공동 개발한 '상큼에 무화과'는 지난해 판매액 100억원을 돌파했다.

올해 상반기 전남 12개 연합사업단과 5개 원예조합공동사업법인은 1975억원에 달하는 매출 실적을 올렸다.

올해 세운 매출 목표는 3800억원으로, 이 추세라면 순조롭게 목표를 달성할 것으로 전남농협은 내다봤다.

완도·해남·강진·보성·신안·진도 등 6개 시군 9개 농가는 기후변화에 대응하며 올해 12t 바나나를 출하할 예정이다. 재배면적은 2.3ha 규모다.

전남농협은 전남도농업기술원과 업무협약을 맺고 기후변화 대응 수입대체 작물로 바나나를 선정하고 신소득 아열대작목을 육성하고 있다.

바나나 재배 기술과 후속 기술을 체계화하고 계획적 출하와 판매시기 조절을 위한 연중 출하에 힘쓰고 있다.

전남 쌀 대표 공동 브랜드인 '풍광수토'는 한국소비자협회 주관 '2021 대한민국 명가평품대상'에 2년 연속 선정됐다.

풍광수토 매출액은 지난 2017년 6억원, 2018년 43억원에 이어 2019년-2020년 2년 연속 100억 원 이상 매출액 돌파를 기록했다.

박서홍 본부장은 "올해는 농협 창립 60주년이 되는 해로, 농협을 믿고 함께해준 농업인과 국민의 60년 성원에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농업이 대우받고 농촌이 희망이며 농업인이 존경받는 함께하는 100년 농협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전남농협 '청년 농업인 응원 캠페인'.



지난 6월 함평군 염다면에서 진행된 '전남 쌀 종자주권 독립 선언 행사'에서 스마트 자율주행 이앙기가 모내기를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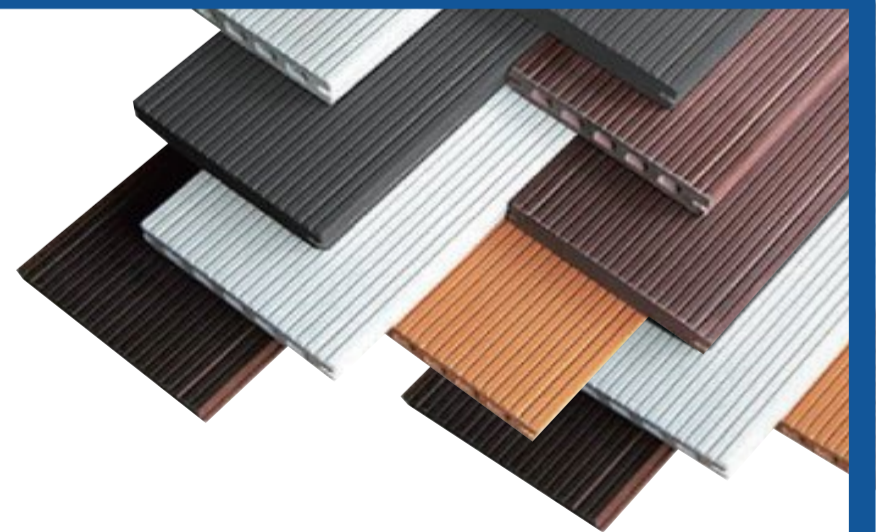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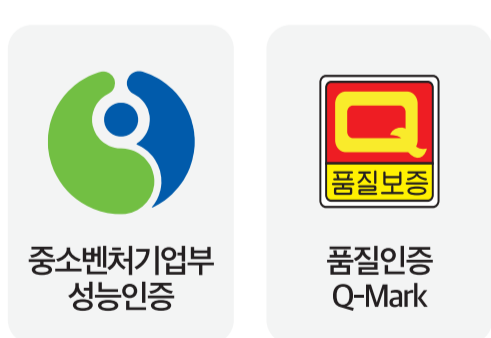


박 본부장이 추석을 앞두고 농협 로컬푸드 직매장을 찾아 전남 농축산물 선물 꾸러미를 살펴보고 있다.

"데크의 세대교체!"

불에 타지 않고 물에 썩지 않는

논슬립 디자인데크



기존데크 → 고강도 디자인데크



습기의 의한 부식, 번거로운 유지관리 기존데크 철거 후 디자인데크 시공 국산 원재료사용으로 경제적이며 재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데크!